

제17호

발행일: 서기 2008년 2월 29일(금)
창간일: 서기 2000년 8월 25일
구독신청: (02) 836-5631
FAX: (02) 833-9401
H. P: 010-4114-4078

安東金氏 翼元公派宗會報

발행인: 김태영
편집인: 김만길
발행처: 안동김씨익원공파종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2동 1057-33
인쇄인: 김성희

사무실 전화번호 (02) 836-5631 은 총무부장 휴대전화로 연결되었습니다.



會長 泰英

會長 泰英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각宗親님들의 家庭에 萬福이 充滿하고 尊體 康寧과 하시고자 하시는 모든 일들 所願 成就하시기를 祈願합니다.

지난 丁亥년에는 國內外의로 多事多難하였던 한해였습니다.

그중에도

첫째, 우리 宗會는 祖上님들의 蔭德과 加護下에 先任 會長님들과 任員님들이 이루어 놓으신 基盤과 宗親 여러분들의 積極的인 指導와 鞭撻로 한해를 大過없이 無事히 넘긴 것을 多幸으로 生覺합니다.

둘째, 安東金氏 門中の 大慶事로 지난 2007년 11월 5日 政府에서 發表한 2009年 上半期부터 發行 豫定인 10萬圓券 紙幣의 肖像人物로 獨立運動家이시고 우리 派祖님이신 翼元公 할아버님의 長孫이신 護軍公(諱 宗浚)의 18代孫 白凡 金九先生이 選定된 것은 우리 翼元公派 宗會의 慶事일뿐이 아니라 全 安東金氏의 慶事로 思料되

며 特히 選定되기까지 署名運動 등으로 積極 協助해주신 全國의 宗親님들께 感謝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셋째, 歲一祭하는 祖上님들의 享祀에 해마다 熱心히 參席하시던 祭官들이 年歲가 많으셔서 世上을 뜨거거나 舉動이 不便하시어 參席지 못하므로 享祀 參與人員이 減少되는 것을 보고 안타깝기도 하고 걱정도 됩니다.

앞으로는 兄弟 子孫들은 勿論 가까운 宗親들께도 連絡하시어 많이 參席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每年享祀에 20餘年間을 거의 參席하였는데 昨年 2007년에는 陰曆 7月 29日 밤에 지내는 高敞郡에 새로 建立한 翼元公 부조묘에서 翼元公 할아버님의 600週年 祭祀에 初獻을 한것을 비롯하여 10月 9日 安東 忠烈公 할아버님 10月 7日 安養 文英公 할아버님 享祀에서는 終獻을 하였고 10月 5日 淸原 梧倉 貞簡公 할아버님, 10月 6日 楊平 翼元公 할아버님 密直使司公 할아버님 享祀에서는 各各 初獻을 하였습니다. 榮光으로 生覺하며 앞으로는 더욱 熱心히 다니겠습니다. 今年度(2008年) 宗會 事業計劃

새해 福 많이 받으세요!

1. 洛圃齋室과 神道碑閣 지붕 修理
洛圃齋室과 神道碑閣 지붕 器瓦가 오래됨에 따라 一部 破損되어 漏水로 建物이 損傷될 憂慮가 되므로 今年度 豫算에 編成 總會의 承認을 받아 오래 保存될 수 있는 銅器瓦로 補修하고자 합니다.

2. 密直使司公 壇所 移轉計劃
密直使司公 壇所의 位置는 翼元公 할아버님 墓下라 종으나 場所가 峽谷이라 陰散하고 狹小하여 다른 場所를 勿索하고 壇碑로 建豎하였으면 합니다.

3. 翼元公 할아버님 墓所에 올라가는 階段造成
翼元公 할아버님 墓所에 올라가는 階段이 없어 不便하므로 階段을 新作하여 不便을 解消하고자 합니다.

위의 두 事業은 宗會의 豫算이 아닌 全宗親님들이 同參하는 獻誠金으로 建豎 및 造成하고자 합니다.

이런 祖上님들을 爲하는 爲先事業은 自ず 하지 못합니다. 여러 宗親님들 中에는 祖上님들 爲하여 爲先事業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망설이는 宗親님들 또는 무엇인가 하고 싶어하는 宗

人님들이 있습니다.

이 機會에 同參하시어 뜻을 이루시면 同參하신 분들의 名單을 獨에 刻字하여 壇碑 庭邊에 세워 永久히 保存토록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後世에 裔孫들이 보고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宗親들이 多數 參與 바랍니다. 이 事業은 今年 3月 定期總會에서 移轉 壇碑 建豎 및 補修 그리고 獻誠金 收金方法을 承認받아 今年度에는 獻誠金만 收金하고 壇碑 建豎이나 階段造成은 來年(2009年)에 特別事業으로 推進하고자 합니다. 宗親님들이 惠諒하시고 이 爲先事業이 圓滿히 目的 達成되도록 積極的 協助하여 주시기 懇望합니다.

끝으로 宗親 여러분 3月 定期總會와 秋季 享祀때 많이들 參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今年에도 여러 宗親님들의 家庭에 萬福과 幸運이 充滿하고 尊體 康寧 하시기를 伏望하오며 新年辭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2008年 새해아침
安東金氏 翼元公派宗會
會長 金泰英 拜上

회장 단 명단

명예회장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부회장	부회장	부회장	부회장	부회장	부회장	감사	감사
(문)在珞(재)	(호)泰英(태)	(호)在光(재)	(좌)三郎(태)	(진)在寬(재)	(문)太圭(목)	(문)在永(재)	(호)容默(목)	(목)元九(회)	(풍)鏞鴻(태)	(진)泰辰(태)	(문)佐會(회)

임원 명단

● 고문(파순)

김 신(참. 서울시)
김수백(좌. 서울시)
김항식(좌. 안양시)
김찬희(문. 서울시)
김영준(문. 계룡시)
김인종(문. 부천시)
김기회(호. 청원군)
김준희(호. 부여군)
김용대(호. 서울시)
김문원(목. 서울시)
김영희(목. 서울시)
김경희(목. 서울시)

● 명예회장

김재용(문. 서울시)

● 회 장

김태영(호. 청주시)

● 수석부회장

김재광(호. 서울시)

● 부회장

김삼량(좌. 고창군)
김재관(전. 서울시)
김태규(문. 상주시)
김재영(문. 수원시)
김용목(호. 청주시)
김원구(목. 강릉시)
김용호(풍. 서울시)

● 감 사

김태진(전. 청주시)
김좌희(문. 수원시)

● 이 사

김군식(참. 부천시)

● 직랑공

김희석(고창군)
김장업(고창군)
김수은(고창군)
김수업(고창군)
김용호(고창군)

● 직장공

김봉희(천안시)

● 전첨공

김재식(서울시)
김재훈(양주시)
김영수(의정부)
김태진(서울시)

● 문정공

김윤목(춘천시)

김형목(시흥시)

김재윤(아산시)
김영희(서울시)
김환희(용인시)
김봉희(서울시)
김성희(서울시)
김태영(충주시)
김태진(충주시)
김태준(성남시)
김태철(수원시)
김태철(아산시)
김태집(서울시)
김창식(용인시)
김동수(안동시)
김근식(서울시)
김진중(대구시)
김경문(서울시)

● 호소공

김영옥(서울시)

김지묵(포천시)

김재남(화성시)
김재남(고양시)
김재범(남양주시)
김재화(화성시)
김명희(서울시)
김원희(김포시)
김창성(서울시)
김태길(청주시)
김태영(공주시)
김태철(서울시)
김구식(청주시)
김영환(서울시)
김태철(부여시)
김만교(서울시)

● 목사공

김영화(대구시)
김종원(대구시)
김재한(서울시)

김종희(태안군)

김준희(함안군)
김철희(강릉시)
김인희(강릉시)
김갑희(용인시)
김태정(강릉시)
김건식(고양시)
김용세(당진군)

● 풍양군

김기환(고양시)
김성현(동두천)

● 집행부

총무부장 김만길(좌. 서울시)
의전부장 김영희(호. 서울시)
조직부장 김영상(호. 김포시)
사업부장 김봉식(좌. 광명시)

贈領議政 同樞公 金宗淑 影幀 奉安 告由祭 奉享

금년 무자년 1월 9일에 익원공과 종회 회관에서 동추공 영정 봉안식 고유제를 봉행하였다. 동추공 18대 종손 김찬회께서 동추공, 문정공 선조님의 양위분 영정 제작비 일체를 자부담하여 영정을 모셔 오시어서 동추공 종회에서 종손의 숭조 정신에 감응하여 제수와 청주를 정성껏 준비하고 고유 축문을 짓고 후손들에게 봉문을 시고 하여 동추공 김원문 회장을 비롯하여 익원공 종회 김태영 회장과 많은 후예들이 참석한 가운데 동추공 영정 봉안식을 엄숙히 거행하고 영정은 재실이 건립되기 전까지 임시로 익원공 영정각에 봉안기로 하였다.

贈領議政 同樞公 (諱 宗淑) 影幀 奉安記

공의 본관은 안동이며 諱 宗淑 이시다 翼元公(諱 士衡)의 손자이신 공은 서기 1400년에 태어나셨다. 密直司使公(諱 陞)께서 네형제를 두셨다. 長子(諱 宗淑) 次男(諱 宗漢) 三男(諱 宗潤)이시며 사남이 공이시다. 가선대부 동지중추부사 정헌대부 좌찬성에 이르렀다. 특히 공의 장남 문정공의 훈위로 大匡輔



國 崇祿大夫 諱政府 領議政에 오르셨고 上洛府院君에 추증되셨다. 공께서는 네형제를 두셨는데 長男 文靖公(諱 諱)이며 차남 孝昭公(諱 諱)이며 三男 牧使公(諱 諱)이며 四男은 豐陽君(諱 諱)을 두셨다. 조상 대대로 명문대가를 이어 왔을 뿐만 아니라 그 자손 또한 대단한 명문세가를 형성하였다. 1470년 향수 七一歲에 歿하시니 나라에서 禮葬品을 下賜하셨다.



左議政 文靖公 (諱 諱) 影幀 奉安記

공의 諱는 諱이며 字는 可安이시고 號는 雙谷으로 領議政 同樞公 金宗淑의 장남이며 領議政 鄭昌孫의 사위이시다. 조선국 전기 문종 즉위(1450) 원년에 式年文科에 급제하셨다. 세조의 두터운 신임을 받아 두차례에 걸친 서도수행을 위해 황해도, 평안도 순찰사가 되셨고 세

조 9년(1463)에는 공조판서에 이어 병조·형조판서를 거쳐 우참찬이 되셨다. 우의정에 오르고 이어 좌의정이 되셨는데 세조가 즉자 韓明澮·申叔舟와 함께 院相으로 庶政을 주관하셨다. 1474년에는 奏聞使로 명나라에 다녀오셨다. 특히 세조의 병제 개편에 깊이 관여 했으며, 경국대전 편찬에도 참여 하셨다. 上洛府院君에 진봉되셨으며 시호는 文靖이다. 忠信愛人한 것이 文이고, 寬樂令終한 것이 靖(靖)이다. 공은 風義가 아름답고 言論을 잘하셨으며, 부모를 효성으로 섬기고 형제를 友愛로 대하였다. 누백년동안 影幀을 모시지 못해 노심차사했었는데 17대 嗣孫 璵會께서 공의 깊은 뜻을 가문에 기리기 위해 여정 봉안에 심혈을 기울이셨다. 익원공 회관에 봉안하고 고유제를 올렸는데 많은 후손이 참석하여 깊은 감응을 받으니 할아버님은 따뜻하게 우리의 곁을 지켜 주시는 느낌이 든다.(1422-1478)

익원공 김사형 시향봉행



서기 2007년 11월 15일(음 10월 6일)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목왕리 산 49번지 익원공 묘소(경기도 문화재 자료 제107호)에서 후손 130여명이 전국 각처에서 참석하여 초헌관에 분회 회장 김태영 아헌관에 부회장 김삼람 중헌관에 김태억(재

미국) 집례에 김명희 의전부장 대축에 김태철 부여종회장 진설에 김재훈(의정부), 찬인에 김태영(공주), 봉향 김도갑(서울), 봉로에 김덕회(수원), 봉작 김태진(수원), 전작에 김재택(논산), 사준에 김수희(논산) 직일에 김태규 부회장, 집례에 활기의하여 엄숙히 거행되었다.

밀직사사공의 행사는 초헌관에 분회 회장 김태영, 아헌관 김영준 고문, 중헌관에 김시회(고창) 이하 분방은 익원공 할아버님의 시향 분방관 동일하게 시향을 봉행하고 점심은 낙포재에서 참사자 전원이 화기에에 하게 담소를 나누고 해산하였다.

제39회 정기총회 안내

본 회에서는 제39회 정기총회를 개최코저 하오니 종친간 상호 연락 하시어 많은 참석이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 일시 : 2008년 3월 13일 목요일 11:00시

• 장소 : 선프라자(구, 태양의 집) 3층

(영등포구 대림동 ☎02-835-4000)

• 안건 : 1.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건

2.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건

3. 기타사항 : (당일 회비 10,000원)

• 교통

- 선프라자전철역 신풍역(7호선) 3번출구 신길5동 우체국방면 도보3분

- 사무실 전철역 대림역(7호선) 12번출구, 대림역(2호선) 8번출구

※총회가 끝나고 동추공·문정공·효소공 정기총회 개최

※대종회 총회는 우리 총회 다음날 백범기념관에서 11:00시 개최

연락서☎02-836-5631(총무부장 핸드폰 연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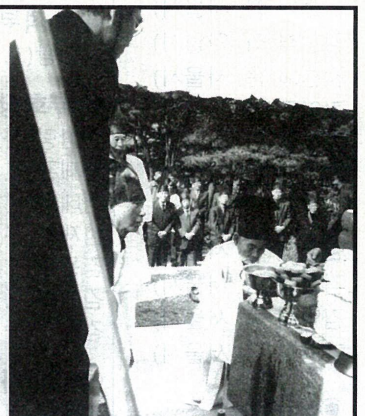
▲익원공 부조묘제사 초헌관 회장 김태영



▲익원공 향사 초헌관 회장 태영



▲익원공 시향 아헌관 부회장 김삼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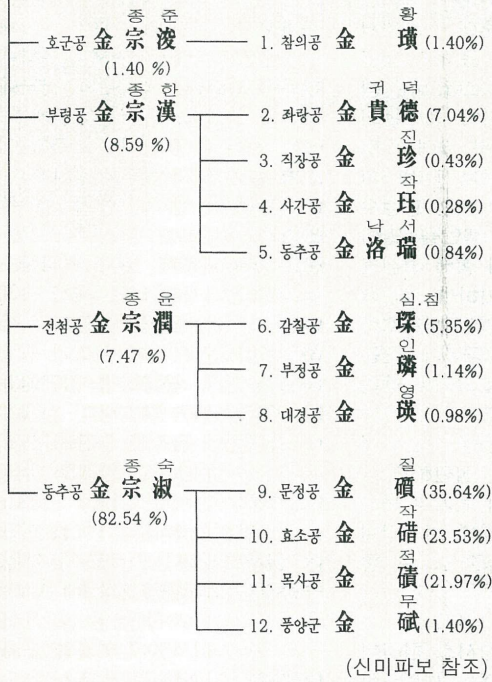


▲익원공 시향 중헌관 재 미국 김태억

익원공 계보

익원공 金士衡
김 사 형

밀직사사공 金陞
김 승



익원공 김사형 파 항렬자

(대중회 기본 항렬자)

총열공	21세	22세	23세	24세	25세	26세	27세	28세	29세	30세	31세	32세
익원공	17세	18세	19세	20세	21세	22세	23세	24세	25세	26세	27세	28세
항열자	○원	영○	○묵	재○	○회	태○	○식	용○	○교	중○	○우	병○
한문	○源	榮○	○默	在○	○會	泰○	○植	容○	○教	鍾○	○雨	秉○
총열공	33세	34세	35세	36세	37세	38세	39세	40세	41세	42세	43세	44세
익원공	29세	30세	31세	32세	33세	34세	35세	36세	37세	38세	39세	40세
항열자	○희	기○	○현	수○	○동	연○	○혁	진○	○영	근○	○병	효○
한문	○熙	基○	○鉉	洙○	○東	然○	○赫	鎭○	○泳	根○	○炳	孝○
총열공	45세	46세	47세	48세	49세	50세	51세	52세	53세	54세	55세	56세
익원공	41세	42세	43세	44세	45세	46세	47세	48세	49세	50세	51세	52세
항열자	○용	택○	○묵	희○	○규	연○	○준					
한문	○鏞	澤○	○穆	熹○	○圭	鍊○	○浚					

익원공 시향 향축대 헌금 방명 2007. 11. 15.

- 500,000원 김태영 회장 충북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 500,000원 김창희(현목, 풍)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 300,000원 김재용 명예회장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 100,000원 김재광(목) 서울시 동대문구 재기동
 - 100,000원 안동김씨 대중회 서울시 동대문구 휘경동
 - 100,000원 문영공중회 경기도 안양시 관왕동
 - 100,000원 동추공중회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 100,000원 안림사공파종회 충북 청원군 오창면
 - 100,000원 좌랑공중회 고창군 공음면 장곡리
 - 100,000원 통덕랑문중 고창군 공음면 녹동
 - 100,000원 호소공중회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면
 - 100,000원 목사공중회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면
 - 100,000원 참의공중회(문)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 100,000원 문정공 춘천중종 강원도 춘천시
 - 100,000원 목사공 강릉중종 강원도 강릉시
 - 100,000원 김찬희 고문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 100,000원 김용대 고문 서울시 성북구 하월곡동
 - 100,000원 김문원 고문 서울시 중구 신당동
 - 100,000원 김재훈 이사 동두천 도평의공문중 회장
 - 100,000원 김태영 이사 추남 공주시 탄천면
 - 100,000원 김만희 전남 영광군 대마면
 - 100,000원 김도갑 합천 통덕랑공중회 회장 서울시
 - 100,000원 김영희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마두동
 - 100,000원 김영식 충남 천안시 쌍용2동
 - 50,000원 청주종친회 충북 청주시
 - 50,000원 인천종친회 인천광역시
 - 50,000원 김영준 고문 충남 계룡시
 - 50,000원 김항식 고문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흥동
 - 50,000원 김재광 수석부회장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동
 - 50,000원 김재관 부회장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 50,000원 김태규 부회장 경북 상주시 서문동
 - 50,000원 김재영 부회장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 50,000원 김근식 이사 경기도 부천시 고강동
 - 50,000원 김장업 이사 녹동중종 회장 고창군 공음면
 - 50,000원 김영희 이사 문정공중회 회장 서울시 강북구
 - 50,000원 김태철 이사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 50,000원 김창식 이사 경기도 용인시 모현동
 - 50,000원 김지묵 이사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 50,000원 김재남 이사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풍동
 - 50,000원 김태길 이사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용담동
 - 50,000원 김용세 이사 충남 당진군 신평면
 - 50,000원 김인권 전북 고창군 공음면(서울시)
 - 50,000원 김재갑 서울시 종로구(타울)
 - 50,000원 김안희 경기도 안양시
 - 50,000원 김대식 대전시 동구 가오동
 - 50,000원 김형재 경기도 안산시
 - 30,000원 김명희 의전부장 서울시 사당동
 - 30,000원 김재택 충남 논산시 상월면
 - 30,000원 김충희 경기도 남양주시 퇴계원면
 - 30,000원 김태영 충주시 엄정면 논강동
 - 20,000원 김성목 충북 증평군,읍 중촌리
- 계 4,740,000원

대단히 고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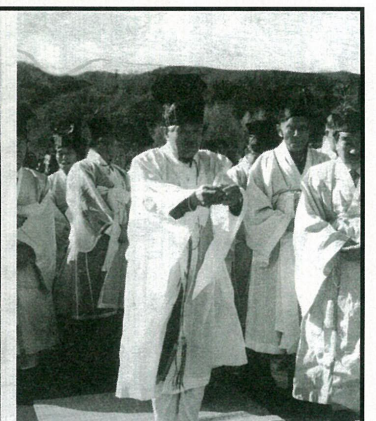
▲밀직사사공 초헌관 회장 김태영



▲밀직사사공 아헌관 고문 김영준



▲밀직사사공 증헌관 고창 김시희



▲충렬공 시향 증헌관 회장 김태영

논산 종친회 제21회 정기총회 개최



2008년 1월 10일 오전 11시 논산시 취암동에 있는 고구려식당에서 여러종친분들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21주년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창묵 회장의 격려사에서 단결과 화합을 강조하며 논산종친회가 앞으로 더욱 발전하기를 기원하

며 임원 개선을 하였다.

회장 재회, 재무 윤환, 감사 태용, 총무 재택을 선출하였다.

참석자 재실, 영희, 태훈, 경수, 태진, 수희, 용희 종친께서 참석하였다.

「제공:논산 종친회 총무재택」

고창 부령공 시향 안내

1. 부령공 김중환 좌랑공 김귀덕

- 일시: 서기 2008년 4월 2일(음. 2월 15일) 월요일 10:00시
- 장소: 전북 고창군 공음면 장곡리

2. 효자 진사 영모당 김질(金質)

- 일시: 서기 2008년 4월 1일(음. 2월 14일) 일요일 오전 7시 30분
- 장소: 전북 고창군 공음면 갑촌리 도암서원

당진군 종친회 익원공묘소 참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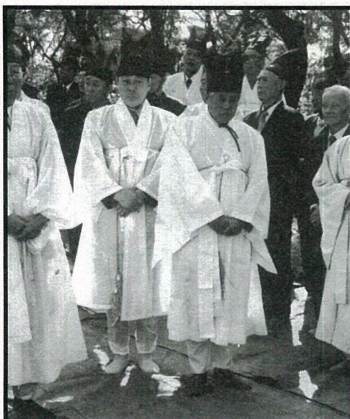
2007년 7월 5일 11:00에 당진군 종친회 김재진 회장을 비롯하여 40여명은 버스를 대절하여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묵왕리 위치한 익원공(휘 김사형) 할아버님의 묘소를 참

배하였다. 이어 익원공 할아버님의 둘째 아드님이신 밀직사사공(휘 김승)묘를 참배하였다. 익원공 할아버님의 묘소는 경기도 지방문화로 지정되었다. 이어 다산 정약용 선생 기념관을 관람하고 그곳 한강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경기도 포천 내촌 동추궁(휘 김중숙)묘소와 풍양군(휘 김무)묘소를 참배하고 귀향하였다.

영의정 낙홍부원군 김자점(領議政 洛興府院君 金自點)

공의 호는 낙서(洛西)이고 익원공 김사형 9세손이고 문정공 김질의 증손자, 관찰사공 김억령의 친손자, 현감공 김탁의 차남. 이처럼 화려한 가문에서 출생하여 일찍이 우계 성혼의 문하에서 수학하였고 벼슬은 음사로 등용되고 병조좌랑에 이르렀으나, 광해군 때에 인목대비의 폐비논의에 반대하는 등 대북 세력시 맞서다가 그들에 의하여 밀려나기도 하였다. 병자호란 때는 도원수로 북진을 지키는 책임을 맡아 강흥립, 최명길 등과 함께 친청을 주장하였다. 이로 인하여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고 병자호란 때 참패의 원인을 공에게 묻는 듯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공은 1623년에 있는 인조반정때 그의 주역으로서 정사 1등공신이 되었다. 그리하여 서인이 집권하게 되었다. 그러나 반정의 논공 때문에 불평이생겼으니 반정에 찬·반대파로 인하여 공을 중심으로 한 낙당파, 원두표를 중심으로한 원당으로 갈라졌으니 낙당을 공서, 원당을 훈서 또는 청서로 칭하여 서인이 분열되고 서로 대립의 상태가 되고 말았다. 그러나 공은 1627년 1월에 정묘호란이 일어나자 강화도로 인조를 호종하였고 순검사 임진수어사로 활약하였으며, 1630년 한성 판관에 이르고 1633년에 도원수가 되었다. 이어서 1642년에 병조판서에 올랐다. 공의 손자인 김세룡이 인조의 딸 효명옹주와 혼인함으로써 공서의 세력기반은 더욱 공고해졌다. 그 공으로 인하여 1643년에 판금부사를 거쳐 우의정에 오르고 여영청도사도 겸했다. 1646년(인조24년)에 좌의정을 거쳐 영의정에 오르고 낙홍부원군에 봉해졌다. 사은사 겸 주청사로 청나라에도 다녀오기도 했다. 공은 정승재임시 선정을 베풀었다. 특히 농업정책에 힘을 기울여 호남 충청지방에 보를 막고 저수지를 축조하여 지금도 그 이름이 자점보로 통하는 곳이 있으며, 황해도 재배령은

배수가 되지 않아 갈대가 우거진 황무지였으나 수로를 개척하고 풍부한 수원을 이용하게 됨으로서 곡창지대가 되었다는 사실이 그곳 향지에 실려있고, 400여년 가까운 지금까지도 세인의 입에서 전설로 전해져 공의 은혜를 감사하고 있다고 한다. 또 전국의 치산을 잘하여 서울 흥제원에 낚에도 범이 출몰한다는 소문에 인조께서 심히 걱정하고 공에게 명하사 대책을 강구하라 하심에 온돌방을 연구하여 장안 세도가는 물론 백성들에게 까지 권장함으로써 지금까지 우리는 세계 유례 없는 온돌방 생활을 지금도 사용하고 있다. 1650년에 인조가 승하하고 효종이 즉위하자 김경려의 상소에 따라 송준길 등이 가세하여 김자점이 국정을 회통하고 조정을 어지럽힌다고 탄핵을 올려 파직되어 강원도 홍천과 전라도 광양으로 유배되었다. 이로 인하여 정계는 다시 송시열, 김상헌, 송준길 등을 중심으로 개편되었고 그뒤이어 해원령 영 과 진사 신호 등이 김자점에 역모를 도모하고 있음으로 그를 살려서는 안 된다는 상소가 빗발치자 효종도 할 수 없이 1651년(효종2년) 역적의 누명을 씌워 처형하게 되었다. 이로 말미암아 익원공 김사형의 후손들은 그 연류를 두려워하여 먼지방으로 자취를 감추게 되고 심지어 족보와 조상의 문적까지도 불태워 버렸다고 한다. 이를 계기로 우리 구안동 김씨 가문은 사양길에 접어들게 되고 말았다. 이로서 원당이 득세하여 신안동 김씨 선원 김사용, 청음 김상헌 형제가 상신에 올라 세도를 잡음으로서 이후 순조-헌종-철종대에 까지 걸쳐 60년간 신안동 김문의 세도정치가 전개된것이다. 그러나 이 대목사를 신문한 사람이 원당 중심의 인물인 원두표였으니, 권력을 잡기 위한 치열했던 시대의 정치세력의 하나로 보아야 할 것 같다.



▲문영공 시향 중현관 회장 김태영



▲정간공 시향 초현관 회장 김태영

최근 대중회나 본회로 전화가 많이 오는데 파렴치한 악덕 인간들이 마치 우리 본회나 대중회에서 족보 발간이나 뿌리찾기, 또는 가승을 편찬한다고 속여, 수십만원씩 거액을 편취하는 사기행각을 일삼는 무리들이 있으니 여기에 현혹되지 마시

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면 절대로 책을 구입하지 마십시오.

책을 함부로 사지 맙시다.

첫째, 전화를 받았는데 상기내용이면 우리는 필요없는 사항이라고 전화를 끊어 주시고 둘째, 내용을 모르는 책자가 배달되면 즉시 배달수취거부(반송)하면 됩니다. 책자를 만약 수취하면 다음 반품이 어렵습니다.